

2022-03-09 대통령선거 윤석열 당선의 후유증  
영호남 장벽 여전 서울은 한강 벨트로 나뉘어 세대 성별 차이도 뚜렷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을 두고도 결국은 과거 방식으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두고도 찍는 사람들이 많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하지 못한 결과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도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서  
내 자식에게도 바꾸라고 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진 자들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어림없는 소리

그럼 뭘 해야 되나?  
도산 선생님!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신 당신이여!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2022-03-09 안상구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너무 실망해서 힘이 듭니다.

이거내기 힘들군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모두의 행복을 위해

모두의 평화를 위해  
모두의 무엇을 위해???

그게 아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분간은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괜찮습니다●

시인 류근

또 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군인이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사기꾼, 무능력자가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끼리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나쁜 놈이 지배하는 세상 막자고

울며 소리치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시대의 실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이제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에 몇년 살아봅시다.

어떤 나라가 되는지 경험해 봅시다.

어떤 범죄가 살고

어떤 범죄가 죽는지 지켜봅시다.

보수를 참칭하는 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봅시다.

나라가 어떻게 위태로워지는지 지켜봅시다.

청년과 여성과 노인들이 얼마나 괴로워지는지  
지켜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 가난해지는지  
지켜봅시다.

검사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나라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권력보다

백성과 역사가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권력은 죽어도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남읍시다.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  
재미있게 즐겨봅시다.

군인과 얼마나 다른지  
즐겨봅시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거기 계셔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서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괜찮습니다

우린 또 이기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

## 1) 윤, 서울서 이보다 31 만표 많아..한강변 중심 14 개구서 이겨

오현석 입력 2022. 03. 11. 00:02 수정 2022. 03. 11. 06:11 댓글 50 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진 '비호감 대선', 하지만 이 대선에서 역설적으로 최다 득표 기록이 배출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 20 대 대선에서 1639 만 4815 표(48.56%)를 득표했다. 앞서 역대 대선 최다 득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2012 년 대선에서 1577 만 3128 표를 받았는데 윤 당선인은 이보다 60 만 표가 늘었다. 2 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1614 만 7738 표(47.83%)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낙선했지만 민주당 역대 대선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됐고, 역대 대선 낙선자 중 최다 득표자이기도 하다. 1639 만 표와 1614 만 표로 대한민국이 둘로 짝 갈라진 모양새다.

이런 득표수는 양측 지지자가 서로에 대한 '반감 투표'에 나서며 총결집한 결과란 해석도 나온다. 24 만 7077 표(득표율 0.73%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를 결정지은 표심을 분석했다.

## 20 대 대선 개표 결과

① 영호남 장벽 여전=선거운동 기간 윤 당선인은 '보수의 무덤'이던 호남에 공을 들였고, 민주당은 최초의 'TK 출신' 후보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호남 장벽은 여전했다. 윤 당선인은 영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후보의 고향(안동)이 속한 경북에서 72.76%를 얻은 것을 비롯해 대구(75.14%)·부산(58.25%)·경남(58.24%)·울산(54.41%)에서 모두 득표율 50%를 넘겼다. 영남에서 윤 당선인은 이 후보보다 총 269 만 5973 표를 더 챙겼다.

반면에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3 곳 모두 8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득표율은 84.82%였고, 전남·전북 득표율도 각각 86.10%, 82.98%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호남에서 윤 당선인보다 249 만여 표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균형추를 맞췄다.

② 서울은 한강 벨트로 나뉘어=영호남 표심이 반반씩 나뉜 상황에서 양당이 집중한 승부처는 수도권이었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50.56%를 득표하며 이 후보(45.73%)보다 31 만여 표 더 얻었으나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으로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 25 개 구를 휩쓸었던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엔 윤 당선인이 14 개 구에서의 우위에 그쳤다. 특히 윤 당선인은 보수세가 강한 강남 3 구 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강동·동작·영등포 등 한강변 주변 지역에서 우위를 보였다. 반면에 이 후보는 노원·도봉·강북과 구로·금천·관악 등 전통적인 민주당의 강세 지역을 회복했다.

## 20 대 대선 서울시 개표 결과

이 후보는 자신이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에서 윤 당선인보다 46 만 2810 표를 더 얻었다. 인천에서도 이 후보의 득표수가 3 만 4760 표 더 많았다. 이 후보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당선인보다 18 만 6804 표를 더 얻었다.

③ 캐스팅보트가 된 충청=동서가 갈린 대선에서 캐스팅보터로 승부를 가른 건 중원의 충청권 민심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전(49.55%)·충북(50.67%)·충남(51.08%)에서 고르게 5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 역시 대전(46.44%)·충북(45.12%)·충남(44.96%)에서 45%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5%포인트 차이를 극복하기엔 다소 역부족이었다. 윤 당선인이 충청권에서 더 얻은 14 만 7612 표는 '25 만 표 차' 승리의 주춧돌이 됐다. '충청의 아들'을 자임한 윤 당선인과 '충청의 사위'라 자신을 부른 이 후보의 희비가 엇갈렸다.

신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자유민주연합이나 자유선진당 같은 정당이 있던 충청권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를 그때그때

# 20대 대선 개표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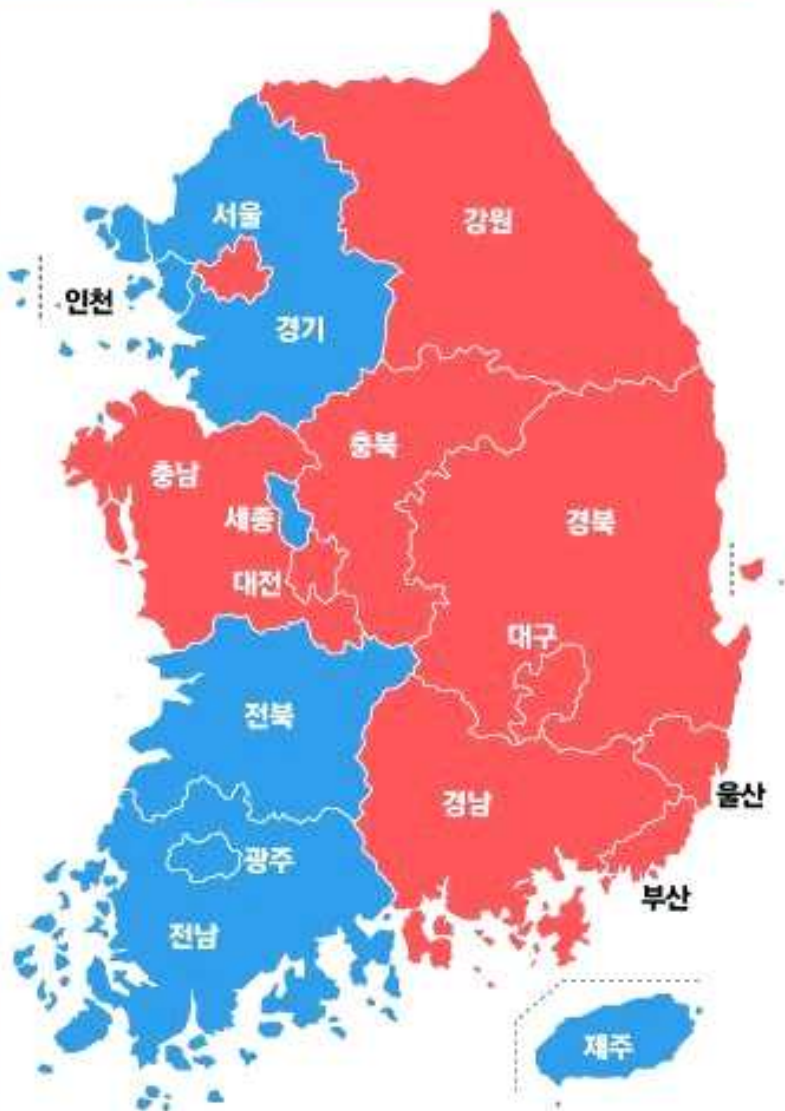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47.83

48.56

서울	45.73	50.56
부산	38.15	58.25
대구	21.60	75.14
인천	48.91	47.05
광주	84.82	12.72
대전	46.44	49.55
울산	40.79	54.41
세종	51.91	44.14
경기	50.94	45.62
강원	41.72	54.18
충북	45.12	50.67
충남	44.96	51.08
전북	82.98	14.42
전남	86.10	11.44
경북	23.80	72.76
경남	37.38	58.24
제주	52.59	42.6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he JoongAng

## 20대 대선 서울시 개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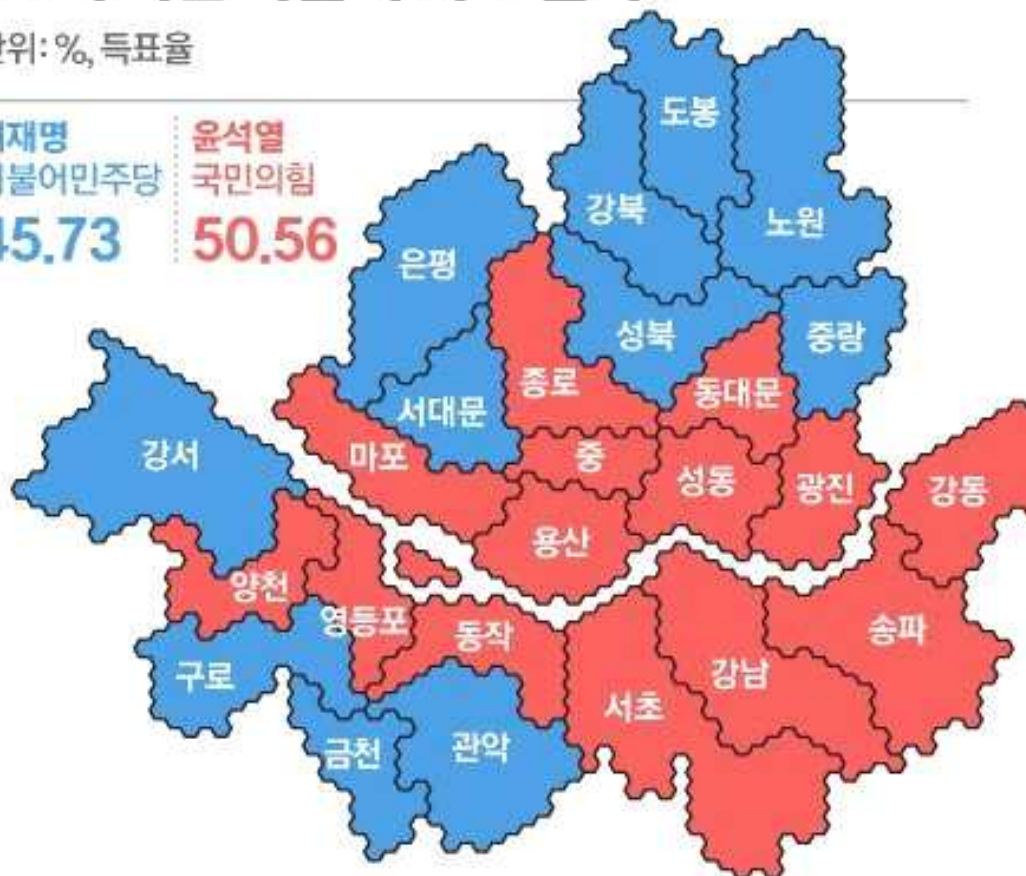
단위: %, 득표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45.73**

윤석열  
국민의힘

**50.56**



종로구	46.42	<b>49.48</b>
중구	45.42	<b>50.96</b>
용산구	39.86	<b>56.44</b>
성동구	43.23	<b>53.20</b>
광진구	47.19	<b>48.82</b>
동대문구	47.10	<b>49.16</b>
중랑구	<b>50.45</b>	45.73
성북구	<b>49.31</b>	46.67
강북구	<b>52.32</b>	43.82
도봉구	<b>49.75</b>	46.59
노원구	<b>48.94</b>	47.22
은평구	<b>51.26</b>	44.65
서대문구	<b>48.33</b>	47.47

마포구	46.50	<b>49.03</b>
양천구	46.39	<b>50.13</b>
강서구	<b>49.17</b>	46.97
구로구	<b>49.19</b>	47.01
금천구	<b>51.56</b>	44.50
영등포구	44.60	<b>51.64</b>
동작구	45.74	<b>50.51</b>
관악구	<b>50.32</b>	45.16
서초구	32.18	<b>65.13</b>
강남구	30.35	<b>67.01</b>
송파구	40.15	<b>56.76</b>
강동구	44.80	<b>51.70</b>

지지하는 전형적인 '스윙보터(swing voter)' 지역"이라며 "충청권에서 진 사람이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는 관례는 이번에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④ 세대·성별 차이도 뚜렷=이번 대선의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선 지역별 표심 격차와 함께 세대·성별 충돌도 함께 부각됐다. 60대 이상은 67.1%가 윤 당선인을 지지했고, 40대는 60.5%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 같은 세대가 확연한 성별 격차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20대 남성은 58.7%가 윤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했고, 20대 여성은 58.0%가 이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과 세대, 때로는 성별로 쪼개진 대한민국 유권자 지형을 놓고 학계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는 의견도 나왔다. 상대를 죽이려고 달려들다 자신이 죽는 드라마 속 게임처럼, 극단적인 정치 갈등이 만연하면 선거에 승리한 진영도 결국엔 불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정당학회장을 지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에겐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며 "특히 강성 보수 지지자들에게 포획되지 않고 그들을 잘 절제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

## ‘이재명 지지’ 높았던 40대는 왜 투표소에 덜 나왔다

이재훈 기자 사진

[이재훈 기자](#)

출구조사 40대 투표율 추정치 70.4% 불과  
“부모 부양·자녀 양육 등 경제상황 민감한 세대  
민주당에 불만…국힘 지지할 바엔 기권” 해석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권아무개(40)씨는 이번 20대 대선에서 투표권이 생긴 뒤 처음으로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지난 5년을 돌아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더 이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권씨는 “40대 초중반은 자산을 축적해둬야 하는 시기인데, 부동산 문제가 직격탄을 안겼다”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내놓은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 자꾸 실현 가능하다고 말을 하니 도저히 투표장에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에 사는 직장인 박아무개(45)씨 역시 이번 대선에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박씨 역시 지방선거 때 한 번 진보정당에 투표한 경험 외에는 모조리 민주당 쪽 후보들을 찍어왔다. 국민의힘 정치인들보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늘 도덕성에서 뛰어나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든 게 가장 컸다고 했다.

11일 방송 3사 20대 대선 출구조사의 세대별 투표율 추정치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40대는 70.4%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60살 이상(84.4%)이었고, 이어 50대(81.9%), 30대(69.3%), 20대 이하(65.3%) 차례로 나타났다. 40대는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됐고, 실제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40대에서 60.5%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윤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84.4%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지지후보에 따른 세대별 결집 양상은 뚜렷했으나, 이들이 ‘실제 투표소에 나왔는지’ 여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 3사의 세대별 투표율은 7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대별 투표율은 대선 한 달 여 뒤에 공식발표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40대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지지층인데 투표율이 70.4%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와 이 후보에 대한 실망이 커서 민주당도 뭔가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기권으로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40대는 가장이 되면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 상황에 민감해지는 세대”라며 “부동산 폭등과 전세난 등으로 불만은 있으나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이들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못하고 투표 불참으로 자신들의 고민을 보여준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mailto:nang@hani.co.kr)

naver 대표계정 입니다.gunn13시간 전

지난 5년 돌아봤을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그네가 망쳐논 부동산 못잡은거 말고는  
도대체 잘 못한게 뭐가 있는지??

부동산 도둑 못잡았다고 도둑을 뽑는 명칭하기 그지 없는것들 ㅜㅜ

덕분에 5년 개고생하기 생겼네 ㅜㅜ

답글13공감115반대40

기네스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기네스3시간 전

@gunn 권성동 장제원 같은 윤핵관 새끼들 설쳐대면서 나라 개판 만들 거 생각하니 깊은 뺨  
침이.

답글공감4반대1

aslan 프로필twitter 대표계정 입니다.aslan7시간 전

@gunn 애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 ~

너 교포냐 ? 연변거지냐 ?

아니면 경제활동 사회생활 전혀 안하는 히키인가 ?

이재명 떨어진건 크게 세가지 이유야

-욕설에서 비롯된 인성 논란 / 분을 못 참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

-대장동 비리 / 이재명이 한거면 그건 빼박 범죄 윤석열이 한거면 이재명의 무능

-세금 도둑질 / 이걸 니들 보기에다 웃기지 않냐 ? 변명 , 반박 불가잖아 ~ 자기도 사과했고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양의 거대한 무능의 똥

Petek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Petek7시간 전

@gunn 40대 좌파들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거지 뭐...

답글공감6반대15

로이윌리엄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로이윌리엄9시간 전 · 공유됨(1)

@gunn 부동산 문제는 불만,

그렇다고 윤가놈 같은 모지리를 찍을 수는 없고..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지.

부동산 실패로 이재명이 모지리한테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셈이다. 닝기미..

답글공감26반대8

Sharon Lee 프로필google 대표계정 입니다.Sharon Lee11시간 전

@gunn [지난해 9월1일 홍준표 '동아일보' 인터뷰]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소수 당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정권교체를 한들

2년 이상 허수아비 대통령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의석수가 약 80석이었다.

그럼에도 정치력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내가 보기엔)

그러나 그 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

김대중 정권때 캐스팅보트 '자민련'이 있었고

문재인 정권 초기도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캐스팅보트도 없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용납하고 협력할까?

싫든좋든 임기 2년동안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임기 초 2년 지나고 나면 좋은 시절 다 지나고 레임덕 아닌가

.

답글공감22반대16

Petek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Petek11시간 전

@gunn 니 운동권 잡귀들 에게 세뇌당한기라. 용한 무당 함 찾아가서 굿한번 해라. ㅋㅋㅋㅋ.

답글공감17반대36

James Cunard 프로필google 대표계정 입니다.James Cunard12시간 전

@gunn 님....

‘이재명 지지’ 높았던 40대는 왜 투표장에 덜 나셨나???

전교조에 세뇌된 머리에든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투표하러 못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는 김대중이와 노무현이 망쳐 놓은 것 바로 잡는다고 힘들었습니다.

제발 내로남불이야기 하지 마세요

5년만에 정권 내준이유는 단 하나!!

내로남불입니다!!

답글2공감27반대62

Rhapsody In Blue 프로필kakao 대표계정 입니다.Rhapsody In Blue8시간 전

@James Cunard 애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요. ㅋㅋㅋ

답글공감14반대5

yakm\*\*\*\*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yakm\*\*\*\*11시간 전 · 공유됨(1)

@James Cunard 대가리 피도 안마른 피떡들이 무슨 운동권 전교조 빨갱이 공산당 지랄 염병  
들을 해요

답글공감13반대22

청산 프로필kakao 대표계정 입니다.청산12시간 전

@gunn .

**줄리가 윤족발이 당선되니**

**벌써 보복 시작(?)..**

**김건희 녹음파일 폭로 '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

첨부된이미지 확대하기

답글1공감54반대10

James Cunard 프로필google 대표계정 입니다.James Cunard10시간 전

@청산 님.....

1억이 벌써 보복??

100억은 되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대화를 녹음하여 공중파를 통하여 방송하였습니다.

대통령부인의 대화를 녹음하여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후보 부인이라고 사사로운 대화를 녹음하여 방송할 수가 있습니까??

김건희가 변호사비 없으면 내가 보탬 것입니다.

몇억은 낼수가 있습니다.

저런 유튜브는 없애고 책임자는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답글공감13반대36

청산 프로필kakao 대표계정 입니다.청산12시간 전

@gunn

첨부된이미지 확대하기

답글1공감48반대14

청산 프로필kakao 대표계정 입니다.청산12시간 전

@청산

첨부된이미지 확대하기

답글공감17반대2

Johannes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Johannes12시간 전  
@gunn .

[류 근 시인 /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 경험해보자"]

”또 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군인이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사기꾼, 무능력자가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나쁜 놈이 지배하는 세상 막자고

울며 소리치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실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에 몇 년 살아봅시다

어떤 나라가 되는지 경험해 봅시다.

어떤 범죄가 살고 어떤 범죄가 죽는지 지켜봅시다

보수를 참칭하는 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봅시다

나라가 어떻게 위태로워지는지 지켜봅시다

청년과 여성과 노인들이 얼마나 괴로워지는지 지켜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 가난해지는지 지켜봅시다

검사들이 지배하는 나라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권력보다 백성과 역사가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권력은 죽어도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남읍시다”

답글2공감69반대11

둥둥둥둥둥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둥둥둥둥둥10시간 전 · 공유됨(1)

@Johannes 살기 힘들어서 문가정권을 바꿨습니다.

답글공감10반대22

마존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마존11시간 전

@Johannes 참담하지만 또 5년간을 견뎌내야죠.해방후 부터 지금까지 친일앞잡이들과 결탁한 이승만정권도 견뎌냈고,또 시민혁명으로 쫓아냈고,독립군토벌하던 왜군장교 다카키마사오치하에서도 18년을 견뎌냈고,국민을 학살한 반란군 치하에서 또 8년을 견디고 시민혁명으로 또다시 민주주의를 되찾았죠,사실상 해방후 지금까지 77년을 친일매국노들과 그 후손들에게 지배당하며 살고있는겁니다,이제는 이런 사실조차 왜곡당하고 있죠

<https://www.insight.co.kr/news/172523>

답글1공감38반대6

둥둥둥둥둥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둥둥둥둥둥10시간 전 · 수정됨 · 공유됨(1)

@마존 김대중과 박정희의 공통점은 둘 다 창씨개명을 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일본명은 '다카키 마사오', 김대중의 일본명은 '토요타 다이쥬'.

둘 다 일본 이름이지만 여기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당시 창씨개명은 조선반도에 살고 있던 조선인 모두에게 주어진 왜놈 치하의 강력한 압박이었다.  
하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은 비록 개명을 하더라도 한국 고유의 성씨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김이라는 한자가 포함되는 '가네야마', '가네모도' 같은 성을 가졌고, 남씨는 발음만 바뀌서 '미나미'라고 바꾸는 식이었다.  
박정희의 '다카키' 역시 한자 박씨에서 나무 목 변을 갖고 와서 만들어낸 성씨였다.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하긴 하되 한국성의 흔적이라도 간직하려는 갈망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은 '가네야마'도 아니고, '가네모도'도 아닌, 굳이 전형적인 일본 성씨인 '토요타' (현재 일본 대표적인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다, 그 정도로 철저한 왜색 이름)를 골라 스스로 개명을 했다는 사실이다.  
자아, 누가 더 왜색풍에 젖은 창씨개명이었는 지 스스로 판단해 보자..  
더군다나 김대중이 개명을 한 시기가 박정희보다 훨씬 먼저였다는 것  
이해찬이가 떠들던 20년, 5년만에 끝난 이유가 당신같이 생각없는 사람들 때문인가  
알고 자중해라

답글공감9반대20

당랑거차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당랑거차13시간 전 · 공유됨(1)

@gunn 아직도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보다 더 잘 했다고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나.  
문재인정부 스스로도 처음에는 이전 정권과 다르다를 주장하다가 뒤에 가서는 하는 일마다 이전 정권도 그랬었다를 주장 했는데

답글공감20반대44

Eric Lee 프로필facebook 대표계정 입니다.Eric Lee13시간 전 · 수정됨

@gunn 그런 문재인 대통령님 거짓말로 끝까지 까댄 쓰레기가 이재명. - 정동영 시즌 2 에 대한 분노죠.

답글2공감7반대37

yakm\*\*\*\*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yakm\*\*\*\*11시간 전 · 공유됨(1)

@Eric Lee 진짜 대가리가 썩었네... 지금와서 보면 문통이 꼴통 맞았어  
스스로 사리분별 못하고 남들이 하는 소리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니들도 꼴통이고

답글공감11반대6

gunn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gunn12시간 전

@Eric Lee 뭘 개소리임? 어떤 거짓말을 말하는건지 좀 둘러대보시지?

@라운하제 그나마의 부동산도 박근혜때부터 차곡차곡 제공한 원인들이 쌓여서 코로나로 터진 것

50대인 나도 40대와 같은 생각~ 부동산 폭등시킨 민주당은 싫고 그렇다고 국민당은 더 싫고~

답글공감0반대

=====



## 2. 디씨 '이재명 갤러리' 관리자 실종 소동...경찰, 신병 확보

송고시간 2022-03-11 11:34

### 가. 부친 신고 받고 수색..가족에 신병 인계

#### A 씨 유서

[이재명 갤러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김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리자가 이 후보의 낙선 확정 직후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경찰에 발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께 물왕동 물왕저수지 인근에서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관리자인

## [공지] 유서

2022.03.10 10:03

조회 75 댓글 4 ↓ 갤로그



돌이켜놓고 보면 내가 이곳을 총괄하고 관리해온것부터가 과분한 일이었다. 지지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마음을 놓을 곳이 없어서 이곳을 탈환하고 과분한 호응을 얻어서 총괄자로 추대되어 고뇌 끝에 수락하고 관리해왔는데 원래 목적은 일종의 작은 쉼터였다. 나같은 지지자들이 마음놓고 마음편히 얘기할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내 계획이었는데 어쩌다보니 거대한 성채가 되었고 그 거대한 곳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는건 부정할 수가 없다.

A(31)씨를 발견해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A 씨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상태였다. 그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전날 오전 10 시께 이재명 갤러리에 "영혼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며 "이곳을 총괄하는 동안 온갖 음해와 협박에 시달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휴대전화를 끈 채 연락이 두절됐다.

그는 유서에 "어렸을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한) 민영환과 전태일이 왜 죽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야 이해가 된다"면서 "스스로를 제물로 내던져서라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거대한 부정적 흐름을 막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후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과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시흥경찰서는 A 씨 아버지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전날 오후 2 시 40 분께 관련 공조 요청을 받고 수색에 나섰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12 월 이재명 갤러리에 세 차례 글을 올려 2030 세대 남성을 겨냥한 정책 등을 발표했다.

-----  
윤석열-이재명 24만표 차이인데... 30만표나 쏘아진 '무효표'

등록 :2022-03-10 09:47수정 :2022-03-10 11:52장나래 기자 사진

장나래 기자

구독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링크스크랩프린트글씨 키우기

안철수·김동연 사퇴 원인으로 풀이... '불복 시비' 우려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



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득표 차보다 무효표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올라온 개표 완료 결과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30만7542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19대 대선 당시 무효표(13만5733표)나 18대 대선 당시 무효표(12만6838표)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일뿐만 아니라,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차보다 더 많은 수치다. 이번 대선에서 윤 후보는 1639만4815표를 받아, 이 후보(1614만7738표)보다 24만7077표를 더 받았다.

두 후보 간 표차보다 무효표가 더 많이 나온 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 시점 이후 사퇴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 옆에 ‘사퇴’라는 표시가 돼 있으나, 미리 인쇄된 본투표 용지에는 이런 표시가 없어 일부 헛갈린 유권자들이 두 사람에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두 사람 사퇴 전 이뤄진 재외국민 투표(2월23~28일 실시)에서도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을 것이라 추정도 나온다. 또 지난 5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도, 무효표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던 제20대 대선이 0.73%포인트의 초박빙 격차로 끝난 상황에서, 후보 간 표차이보다 더 많은 무효표가 대선 결과 불복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김두관 “노영민·김현미·김수현 출당해야…이재명 비대위 지방선거”

등록 :2022-03-11 16:51수정 :2022-03-11 19:57최하얀 기자 사진

최하얀 기자

구독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링크스크랩프린트글씨 키우기

지난해 9월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던 김두관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던 김두관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을 혁신하고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당은 지방선거를 이끌 든든한 선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촛불연대를 거부하고 독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였던 탄핵연대, 촛불연대를 외면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을 차지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탄핵에 찬성하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모두 팽개쳤다”며 “그래놓고 대선 한 달 전 들고나온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로 어떻게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었겠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를 거론했다. 그는 “개혁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오

만이 민주당을 지배했다”며 “끼리끼리 나눠 먹는 전리품 정치에 회전문 인사를 거듭했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내 편이라는 이유로 자리에 앉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부동산 심판선거였다”며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염치없이 단체장 선거에 나간다면 표밭을 누렸고 당에선 이런 인사들에게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인사 실패의 끝판왕은 윤석열 당선인”이라며 “이 정부가 키운 당사자가 4년 만에 칼을 품고 덤볐다. 도대체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할 책임자라 판단한 사람은 누구이며 대통령에게 천거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누구 하나 미안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문에 드러누워서라도 끝까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외쳤어야 했는데 중간에 철회한 제가 천추의 죄인”이라며 “결국 검찰을 국민 위의 검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이 전 후보에게 투표한 “48% 뒤에 숨을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읍참마속”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책임자, 윤석열 추천인,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인적 청산의 시작은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부동산 책임자의 출당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잠정적으로 구성된 윤호중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로는 검찰의 칼날도, 지방선거의 승리도 보장하기 힘들다”며 “방금 선거를 끝낸 이재명 후보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을 혁신하고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은 지방선거를 이끌 든든한 선장이 필요하다”며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대비하는 것은 더 나빠진 조건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동지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당의 대선후보가 (이 전 후보로) 확정되었는데도 권리당원 자격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당원들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바로 출당시키고 두번 다시 민주당의 언저리에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당의 기강을 세워야 전열이고 뒤편 정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환골탈태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세력들을 살살이 찾아내서 모두 출당시키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mailto:chy@hani.co.kr)

수사 후폭풍 시달릴까, 2년 뒤 총선 출마할까...이재명의 ‘운명’은

등록 :2022-03-10 17:20수정 :2022-03-12 02:30송채경화 기자 사진

송채경화 기자

구독

김윤주 기자 사진

김윤주 기자

구독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링크스크랩프린트글씨 키우기

민주당 역대 후보 중 ‘최다 득표’ 세워

“대선 패배 ‘후보 책임론’ 당내 크지 않아”

당장 대장동 수사 등 난관부터 극복해야

“엄청난 피바람 불어 재기 어려울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분간 공개적인 활동 없이 성찰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24만7천표(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패배한 그는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다 득표(1614만7738표)기록도 함께 세워, 책임론보다는 선전했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민주당 전체적으로 패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이 후보의 정치적 재기 시점과 방식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민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 후보는 1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는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다”며 “선대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의 부족함을 탓하시되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 제 진심”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 등 검증·도덕성 문제로 공격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한 본인의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이 전면 부각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이날 <한겨레>에 “후보는 최선을 다 했지만 정권교체론을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 탓”이라며 “후보 책임론은 당내에서 큰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지도부도 “정권교체 여론이 한참 높았던 상황에서의 선거 치고는 선전했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됐어도 이걸 극복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선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리스크를 정리하는 게 급선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맞닥뜨린 건 정권심판론과 이 전 후보의 여러 의혹들이었다”며 “정권심판론은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 의혹은 본인이 오롯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그간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대장동 특검’을 주장했고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검찰·특검 수사 등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이날 당선인사에서 ‘부정부패 엄단’을 강조했고 ‘대장동 의혹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자가 공언했듯이 아마 한동안은 대장동 때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피바람이 불 수 있다”며 “당장 재기를 노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대세론을 형성해 승리했고 이날 당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됐지만 여전히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그가 풀어야 할 숙제다. 당 관계자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원팀’이라고는 했지만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시너지를 냈는지는 의문”이라며 “공고한 ‘이재명 지지세력’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선거운동 중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선대위에 전격 합류하며 ‘원팀’ 구성에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당내 모든 세력이 똘똘

문치는 ‘화학적 결합’은 아니었던 만큼 당내 정치 세력화에는 성공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에 이 후보를 대체할 거물급 인물이 없다는 점은 그가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며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거니까 민주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라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정치적 재기 방식은 2년 뒤 총선 출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쳤지만 국회의원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 의회정치를 모른다는 약점을 제거할 수 있어서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후보의 재기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 편가르기 등 정치적 갈등을 계속 유발시킨다면 이 후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0.73%p차 승부는 준엄한 ‘민심의 경고’였다

등록 :2022-03-11 04:59수정 :2022-03-11 14:44이재훈 기자 사진

이재훈 기자

구독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링크스크랩프린트글씨 키우기

여야 모두에 ‘자만 말라’는 신호

윤, 각종 음모론·갈라치기로 일관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잡게 되면

폭주하는 것 아니냐’ 불안감 표현

이, 2030여성·호남 높은 지지에도

정권교체론 덮을 비전 못 보였고

대장동 등 의혹에 신뢰연기 실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4만7077표, 0.73%포인트 차이. 민심은 절묘했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도 지지를 몰아주지 않고 역대급 박빙 드라마를 연출했다. 두 후보 모두 제대로된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 한 가운데, 네거티브전에만 골몰하자 유권자들이 어느 한쪽에도 마음을 몰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견제구’를 던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유권자들은 대선을 통해 윤 당선자가 압도적 표차로 정권을 잡으면 폭주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시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보면서 안보나 평화 문제가 단순히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윤 당선자의 모습을 보면서 협치 없이 홀로 국정을 잘 운영할 거라는 기대를 접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9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외교안보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윤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이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정부·여당을 ‘운동권 세력’으로 규정하며 막말에 가까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음모론’으로 일관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 대변되는 ‘젠더 갈라치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세력에 대해 비아냥대는 방식으로 일관하는 ‘오만한’ 정치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선거 초반에는 이준석식 ‘이대남’ 마케팅이 보수 언론 등에 의해 보수 정치의 변화로 포장되면서 여성들의 민심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선거 후반, 이준석식 갈라치기가 더욱 노골화하고, 윤 당선자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내자 불안한 2030 여성들이 이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혐오에 편승하는 오만한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5년 뒤 반대쪽으로 정권교체가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철 교수도 “한국의 국민적 정서가 권력이 오만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 역시 2030 여성들과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정권교체론을 극복할만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식 독선 정치를 보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방관하는 정치를 보여줬는데, 이 후보가 이런 상황을 극복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새로움을 앞세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민하 평론가는 “이 후보는 추진력이나 결단력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저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여겨졌는데,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력과 결단력이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점도 이 후보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됐다. 김 교수는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서 기득권 담합 구조를 깨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혁파하겠다는 걸 국가적 비전으로 내세웠어야 했는데, 성과에 기반한 유능함 등 실용적으로만 접근해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대 정당 모두 선거 기간 내내 혁신하는 모습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네거티브와 갈라치기로만 일관한 점도 유권자들이 양쪽 모두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됐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성찰과 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했다”며 “이번 선거 내내 윤 당선자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로 일관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캠페인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자 또한 정권심판론만 외치면서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며 “양쪽 다 남한테만 변하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은 혁신하지 않으니 민심을 모두 얻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